

↑ 코스피 2774.29 (+10.78)	↑ 코스닥 812.12 (+2.16)
↑ 금리 (미국 9년) 3.661 (+0.013)	↓ 환율 (원·달러) 1386.20 (-2.00)

호우 등 기상이변에  
7월 물가  
일시적 반등 가능성  
02



## 내년 AI교과서 전국 도입 '슈퍼엔저' 끝물?... 원·엔 환율 880원대 안착 혁신 vs 학습저하 '논란'

오는 2025년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교과서)가 도입된다. 전국에 AI교과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일각에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검증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생들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AI가 학습자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AI교과서를 순차 도입한다. 2025년 초에는 초·중·고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 2026년에는 초·중·고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을 거쳐 확대되며 교과목은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AI 교과서 순차 도입 韓, '세계 최초' 전국 일괄 적용 교사-학생 1대1 맞춤형 교육 기대

### 학부모들 디지털기기 의존 우려 '도입 유보' 국민청원까지 등장

교육부 관계자는 "AI교과서 도입으로 교사 1명이 여러 학생을 맡아야 하는 수업 방식에서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공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결하고 서책형 교과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들은 오는 8월 21일까지 교육부에 AI교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출된 AI교과서에 대해 11월 중으로 검증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 AI교과서 유보 청원 등장

AI교과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AI교과서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안 그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데,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교과서 도입' 이미지.

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아 겁난다"고 걱정했다.

이러한 우려가 계속되자, AI교과서를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5월 올라온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약 한달만에 5만6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청원에 대해 "AI교과서는 수업의 보조 도구일 뿐"이라며 "지면 교과서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 ◆ 교육부 "수업 보조 도구... 우려 해소할 것"

교육부는 "AI교과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도구"라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AI교과서 구동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963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방점을 뒀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 양적 확대를 넘어 적합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각 시·도 교육청도 AI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AI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3800억원을 책정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지난 19일 'AI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협력 중이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 등 AI 교과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금리인하·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100엔당 850원대서 빠르게 상승

이달 초 100엔당 850원대에 머물렀던 원·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880원대에 안착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적완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0.9원(0.1%) 내린 100엔당 885.6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환율은 전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밤 야간 거래(오전 2시 증가)된 883.4원보다는 소폭 올라 880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지난 11일 100엔당 852.7원(오후 3시 30분 증가)이었던 원·엔 환율은 18일에는 884.4원까지 오르며 880원대에 진입한 이후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원·엔 환율은 계속된 엔화 가치 하락에 지난달 말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100엔당 85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원·엔 환율은 이달 중순까지 100엔당 850원대에 머물렀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완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 12일부터 상승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3.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를 소폭 하회한 수준으로, CPI는 시장 예측

을 뒤엎고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치는 94.1%로, 지난 6월 말 전망치인 64.1%에서 크게 올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엔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다.

트럼프는 미국의 수출 촉진 및 제조업 부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출 증대를 위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계속된 엔저를 겨냥해 "우리는 심각한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강달러와 엔화·위안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 대표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 與 새 대표에 한동훈... 집권여당 개혁 신호탄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당심·민심 고른 지지... 63%로 1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며 집권여당 개혁의 신호탄을 쏘았다. (관련기사 6면)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32만702표(전체 대비 62.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보(9만6177표, 18.85%), 3위는 나경원 후보(7만4419표, 14.58%), 4위는 윤상현 후보(1만9051표, 3.73%)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전당대회

에 참석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2개월 만에 당권을 도전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이날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운동과정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3대 의혹

(사전·여론조사팀·운영·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 등으로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당심과 민심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수성했다.

이와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팀 한동훈(박정호·장동혁·진종오 후보)' 중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진종오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김재원·인요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인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 내일 기자회견... 방송4법 상정 방침 밝힐 듯 /사진 뉴스스  
▲ 검찰,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 병무청장 "병역진로설계 등 청년 단위 유 일 정부청년정책에 포함"  
▲ 정부 "북, 지방공업공장 20개 건설"... 정상 운영은 미지수



▲ 코이카·aT, 저탄소 식생활 확산... 글로벌 인재육성 '맞손'  
▲ 황우여 "정권 재창출, 대통령과 합심해 당이 뒷받침해야" /사진 뉴스스